

가족간의 갈등

유송자

전·진·상 의원 가정호스피스팀 사회복지사

◆ 핵심팀 요원으로서 사회사업가의 케어

1. 환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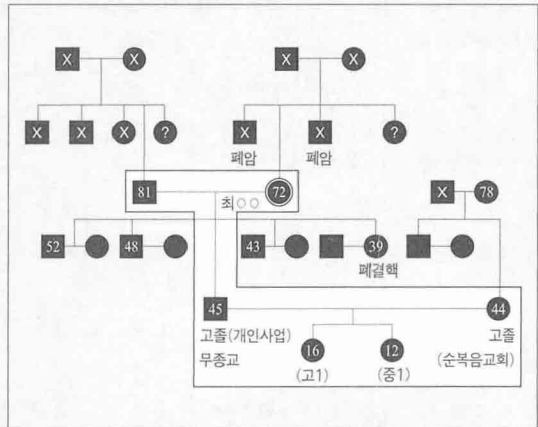
- 등록 : 1999년 1월 5일 - 환자의 셋째 며느리와 상담 후 등록되었음.
- 성명 : 최 ○ ○, 여, 기혼
- 나이 : 1927년생
- 종교 : 무
- 의보상태 : 지역의보
- 진단명 : 폐암
- 증상 : 두통과 흉통, 오른쪽 어깨 결림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
식욕 없고 기운 없다.
- 병력 : 젊어서부터 건강 체질이었음.
5년 전부터 고혈압 → 보건소 치료중
1998년 11월 말부터 숨차고 가슴이 답답,
약간의 흉통있어 동네 방사선과에서 chest
PA 촬영 → 대학병원 의뢰
1998년 12월 12일 대학병원 입원 → 폐암 진단
→ 3주간 입원 치료 후 퇴원
- 환자의 병식 : 늑막염으로 알고 있으며 친정 오빠와 남동생이 폐암으로 사망하여 눈

치를 채듯하나 부정 단계임.

- 사망 : 1999년 7월 4일
- 장소 : 자택

2. 가족 및 가정 환경

1) 가계도



2) 가족관계

- 부부간 : 젊어서부터 부부간 금슬이 좋았고 발병 후 남편의 간병이 지극 정성이며 부인의 병명을 알고

남편의 실망과 슬픔이 큼.

• 아들들과의 관계 :

첫째, 둘째, 넷째 아들 며느리는 부모님을 모실 수 없다하여 셋째 아들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으나 아버지의 성격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어 함.
셋째 며느리는 독실한 순복음교회 신자이며 시부모와 시댁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시부모를 모신다고 함.

• 딸과의 관계 :

위로 아들 4형제 후 막내로 딸을 한 명 두어 어릴 때부터 과잉 보호, 편애가 있었고 결혼 후 폐결핵을 앓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데 대해 아들 4명과 며느리들의 불만이 있음.

3) 주거 환경 :

주택, 반지하실과 1층 건물에 방 3개, 거실, 부엌, 화장실 등 40여평 단독 주택, 셋째 아들 내외와 손녀 딸 두 명이 동거.

4) 경제 상황 :

셋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합동으로 가내공업을 하고 있으나 IMF 후 경기가 어렵고 환자의 입원 치료 등으로 부담이 크지만 생계 문제는 없는 상태임.

3. 가정 방문

며칠간의 기록만 요약 발췌한다.

2월 11일

의사, 간호사와 함께 방문하여 가정 진료 하는 옆에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환자를 남향으로 된 넓은 방에 모시고 있고 평소 사용하던 가구와 물건들이 방안에 그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둘째 며느리와 셋째 며느리가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가족 지지체계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였다.

#아직도 본인의 병에 대하여 확실히 모르고 있다.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할텐데..." 하며 가족들이 걱정이다.

2월 25일

"전 · 진 · 상의 진료 받으면서 통증이 없어졌다"며 밝은 얼굴로 맞이 한다.

"늑막에 물만 빼면 나올 줄 알았는데... 못 낫는 병인 줄 몰랐어요. 내앞에 할아버지가 먼저 죽어야 하는데 내가 먼저 아프다고 할아버지가 속상해 해요."

"못 낫는 병이래요?" 반문하면서 할머니 등을 쓸어 드렸다.

#자기의 병식이 있는 것 같지만 아직 현실감은 없는 듯 하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읽어 드리고 위로해야 될 것 같다.

3월 18일

방에 혼자 계셨다. 표정이 어둡고 불편해 보인다.

"모든게 귀찮다. 빨리 안죽나..." 하신다. 식사를 잘 못하셔서 아침 약도 못드셨다고 한다. "많이 힘드시죠?.." "식사를 좀 하셔야 할텐데..."

#환자의 푸념을 열심히 들으면서 아픔에 공감해 드렸다.

4월 29일

환자가 응접실 문앞에 딸과 함께 앉아 계신다.

"가슴이 터질 듯 아플 때가 있다"며 또 변비 걱정을 하신다.

#딸이 옆에 있어 그런지 걱정에 비해 비교적 편안한 표정이다.

5월 17일

환자가 현관 문 앞에 혼자 앉아 계신다. 속상하고 피곤한 표정이다.

"할아버지와 아들에게 제사 상에 사용하는 제기를 없애자고 했더니 반대해서 속이 상한다" 고 하신다.

셋째 며느리가 환자를 모시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할아버지와 아들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 듯 하다.

#신앙을 가지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듯 하여 다행이나 종교로 인한 가족간 갈등이 표출되어 좀 걱정스럽다.

6월 2일

봉사자와 함께 방문

종교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환자를 모시던 셋째 며느리의 간병이 힘들어지고, 환자의 상태가 더 많은 간병을 요하게 되어 봉사자와 함께 방문하였다.

“약먹기도 힘들어... 그냥 계속 아파서 잠을 못 잤어”

남편과 며느리의 간병보다 셋째 아들의 간병이 마음 편하다며 아들이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

#종교 문제외에 가족간 긴장과 갈등이 감도는 듯 했다.

#처음 본 봉사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셋째 며느리와 개별 면담이 필요할 것 같다.

4. 위기 개입

6월 4일

호스피스 낮 병실에 오신 환자분이 진통제를 맞으면서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간호사가 사회사업가의 개입을 요청한다.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심하여 숨도 못쉬겠고 안절부절 못하고 편안치가 않다”고 하신다.

“많이 아프고 힘드시지요?” 하며 가볍고 부드럽게 통증이 심하다는 우측 윗 가슴을 쓸어 내리며 한손으로는 어깨와 목 등을 마사지 해 드렸다.

“언제쯤 죽을 것 같으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주여 믿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질문과 응답이 오가는 사이에 환자는 통증이 가라앉았으며 전·진·상 호스피스 팀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한다.

6월 8일

낮 병실에서 하루를 지내고 남편과 함께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며 서로 고생한 이야기, 감사한 마음, 미안했던 일들을 나누며 할아버지가 우신다. 환자는 “여기서 한 이틀 자고 가면 안될까?” 하시며 집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출한다.

할아버지는 “봉사자를 좀 파견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어 가족들의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았다.

#가족들과 개별 면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6월 9일

의료진들이 “가정 분위기에 이상이 생겼다”며 셋째 며느리와 시아버지간 충돌이 있었음을 알려줬다.

환자 간병과 가정 분위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셋째 며느리와 상담을 했다.

사건 발단: 6개월 동안 간병을 하면서 손님 접대, 살림살이 등 지쳐있는데 시아버지가 “24시간 깨어 간병을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셨고 시누이가 쫓아 와 폭언, 폭행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살림도 간병도 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상담을 계속 하면서 지금까지 숨겨졌던 가족 갈등 문제가 폭발된 듯 심각했다.

갈등의 근본 문제 :

1. “시아버지의 변덕스럽고 급하고 이기적인 성격” 때문에 가족이 받는 억압감.
2. 막내딸에 대한 지나친 편애로 인한 오빠, 올케들의 불만
3. 종교 문제로 인하여 가족이 분열
환자: 셋째 며느리, 넷째 아들과 며느리 - 개신교
남편: 큰아들, 둘째아들 내외 - 불교, 유교
4. 셋째 아들 - 중립을 지키며 부인편에서 이해해 주

지 않아 섭섭함

5. 형이 둘이나 있으면서도 20여년간 셋째가 부모를 모셨는데 가족간 간병 분담조차 잘 안되는 점
6. 사망 후 상장 예절을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불일치

셋째 며느리의 억울한 심정과 가족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공감하면서 긴 시간 함께 해주며 이야기를 들었다.

“환자의 병세가 깊어지면서 가족들의 긴장도 깊어지고 힘들겠지만 환자의 통증 관리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위해 우선 가족간 화해가 필요하다.

#가족들을 개별 면담하여 갈등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 같다.

6월 12일

넷째 며느리와 상담 : 넷째 며느리는 평소 셋째와 친근하게 지내고 있으므로, 셋째 며느리의 입장에서 이해와 지지, 다른 가족들을 이해시키는 데 중재 역할을 하도록 격려했다.

6월 14일

셋째 아들과 상담 : 어머니가 “빨리 죽고 싶다”고 하신다며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가정 일에 제일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부인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위치임을 강조하고 셋째 아들의 지극한 간병과 효성에 대하여 지지적 상담을 했다. 가족의 협조가 없을 때는 호스피스팀이 계속 일하기 힘들다는 말을 하면서 가족들의 적극적 협조를 구했다.

6월 16일

가정 방문 : 환자의 간병 당번인 둘째 며느리와 상담

가족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따로 사는 며느리 입장에서 들어주고 간병 일을 좀 더 많이 분담 해줄 것을 제안했다.

6월 22일

가정방문 : 환자 남편과 상담

홀로 눈물을 흘리며 처량한 모습으로 마당 구석 대추나무 밑에 앉아 계시기에 “많이 힘드시죠” 하자 “긴병에 효자 없다” “가족들이 신경질을 낸다” “밥을 못 먹으니 기운이 없다” 등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장례 문제에 이르러서는 “교회 의식은 싫다”고 언성 높였다. 할머니 감정을 지성으로 하신 것에 대해 칭찬 해드리고 “할머니 생전에 지성으로 잘 하셨으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환자 자신이 원하는 신앙대로 따라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말하자 “아들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하며 누그러지셨다.

6월 23일

셋째, 넷째 며느리와 상담(둘이는 같은 개신교 교인이다)

아직도 성이 가라 앉지 않은 태도로 시아버지와 둘째 며느리, 시누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로 힘들 때 받은 상처라 쉽게 치유되기 힘들겠지만 20 여년 모셔온 시어머니의 편안한 임종을 위해 가족간에 화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하며 크리스찬으로서 용서와 사랑으로 시누이에게도 연락하여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만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7월 2일

셋째 며느리 내담: “어머니가 너무 힘드신 것 같다”며 조금 누그러진 듯한 표정이다. “의식이 오락가락하

여 딸에게 연락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잘 했다"고 인정해주고 임종과 장례 준비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영적 준비가 아직 안되었다"며 남편과 큰 시아주버니를 만나주길 원했다.

"아버지에게 밥상도 차려 드리고 이제는 말도 해요" 하며 쓰게 웃는다.

7월 3일

큰아들, 셋째, 넷째 아들과 상담 : 환자가 임종을 잘 맞이하기 위해 본인의 신앙대로(가족이 원하는대로가 아니고) 영적 준비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

큰아들 : 유교식을 원했고

넷째아들 : 어머니를 모셨던 셋째 형수와 어머니의 신앙대로 하기를 원했다.

셋째아들 : 아버지의 뜻도 있고 전통도 있으니 교회식과 유교 불교식으로 절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요한 것은 가족간 화합이므로 셋째의 절충안이 좋을 것 같다는 지지를 해주었다.

7월 4일

응접실에 환자의 침대가 나와 있고 비몽사몽중인 환자가 반듯이 누워 있다.

할아버지가 임종인 것 같으며 슬픈 표정이고, 주위에 큰 며느리와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지키고 있다.

#임종 준비에 대하여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였다. "사망 후 환자를 위해서는 개신교 식으로 할 것이고 조문객들을 위해서는 가족들이 원했던 대로 유교식으로 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합리적인 결정인 것 같았고 가족간의 긴장도 완화된 듯 했다.

저녁 10시 55분

환자가 운명했다는 전화를 받고 의료진과 함께 방문했다. 교회 신도들이 찬송가를 부르며 셋째, 넷째 아들이 망인의 손을 잡고 오열을 했다.

평화로운 모습으로 누워계시는 망자와 기도 소리를 뒤로하며 유가족에게 인사한 후 집을 나섰다.

셋째 며느리가 문밖까지 따라 나오며 "어머니의 모습이 참으로 평화로워 천당에 가신 것 같다"며, "다 전·진·상 선생님들 덕분이예요" 하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5. 사별 가족 돌봄

시신은 가까운 병원 영안실에 안치하였다.

장례 예절은 개신교식과 유교식으로 절충하여 가족간 화합속에 진행되었고, 삼우제 후 아들, 며느리 4형제가 찾아왔다.

할아버지와 셋째 며느리를 두 차례 만났으며 서로 화해된 상태에서 특별한 돌봄은 계속 하지 못하였다. 돌아오는 망자의 생일에는 가정 방문을 할 예정이다.